현불 논단

시대 언어와 종교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300만년만의 고독' 표현 나올 정도로
현재 인류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
물질적으로 발전했으나 정신 피폐해져
인류 정신 문명 유지하던 종교도 약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종교 변화해야
과학기술과 충돌 않고 객관성 가져야
교당 벗어난 '영성 공동체' 확대 전망
부처님 가르침 21세기 언어로 전해야

현재의 인류는 '300만년만의 고독' 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18세기부터 현재까지 300년간 진행돼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류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체노동에서 벗어났음에도 왜 '300만년만의 고독' 라는 상황에 도달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인류보편의 정신적 질서를 유지해오던 종교적 도그마의 약화 내지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의식을 창조주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우주와 생명 의 기원에 대해 제법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상태까지 확장시킴으로서 창조주의 존재와 역할이라는 성서적인 서술에 기반한 기독교적 도그마에 대해 점차 더 깊은 회의감을 품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교적 도그마 또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부처님께서는 8만4천 여가지의 가르침을 내리셨기에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급격하고도 충격적인 사회질서의 변화가 초래한 개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에 비해 그동안 개인의 부단한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해온 전통적인 불교의 도그마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거나 대체해야하는 변혁의 갈림길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과연 '300만년만의 고독' 에 처한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종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할 것이나 불교 수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21세기의 종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충돌하지 않는 '대칭성' 과 '객관성' 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절대적 창조자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로 설정된 기독교적 관계를 비대칭적 관계로 보면 그 반대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상' 과 함께 그 일부로 속해있는 인간의 '의식' 이라는 불교적 관계를 대칭적 관계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칭적 관계에 기반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의식으로 그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관찰하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는 종교적 '객관성' 도 동시에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향후의 종교 활동은 극단적인 소외감에 대한 대안으로 사찰이나 교회를 벗어나 명상과 치유, 영성과 생활이 일치된 공동체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안락행(Sukha Vihara)' 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부터 종교인은 신의 통치 대리인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스승이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며, 마음의 치유자이면서 동시에 화해와 관용의 조정자로서의 다중적인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21세기를 탈종교의 시대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20세기 초 서구의 여러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불교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기원이 아닌 우주의 실상을 설명하는 종교이며, 따라서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불교는 더욱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주적 종교' 가 된다고 간파했던 의미를 우리 스스로 잘 새겨보아야 한다.

이제 소외되고 고독한 인류에게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계가 21세기의 언어와 방편으로 전해줘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社 說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개선돼야

전통사찰 보수 ·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목조건축물인 전통사찰의 특성상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노후화되고 뒤틀리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자칫 이를 방치하다간 그 가치를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할 때, 현 제도상으로는 전체 사업예산 중 20%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이 '자부담율 20%' 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책정된 기준으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문화재 보수정비시 자부담율이 0%인데 반해,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규제와 관리를 받는 전통사찰은 20%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불교 공약으로 자부담 철폐를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심사보고서에서 역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시 자부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전격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 완화,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통사찰은 불교를 넘어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지켜져야 맞다. 자부담액에 대한 부담으로 보수정비 혹은 방재시스템 구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대통령 공약에 더해 자부담율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시각이 확인됐으니 희망적이다.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과감하게 자부담제를 폐지해 전통사찰 보존유지의 사각지대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교정포교 활성화, 교정인 불자 후원부터

교정인불자연합회가 30여년 만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안양 선운정사가 있는 보궁빌딩 3층이다.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교정교화시설은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벌과 함께 수형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향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종교는 이러한 교정교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법 활동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정교화 포교라는 말이 있다. 재소자들이 전도된 가치관과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는 양심과 지혜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교정교화 포교에서 교화 공무원은 10%가 안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종교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불자 직원들의 신행단체인 불심회가 있다. 이 조식들이 연계된 단체가 바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다.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직이기에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인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교정인불자연합회는 회원 감소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기법회 등이 열리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높은 안양지역에 마련된 사무실과 함께 지도법사 위촉을 통해 교정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의 토대가 생겼다. 교정인불자연합회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자신의 보물을 찾아라

다음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지니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가정교사 설리번을 만나 장애를 극복하고, 명문으로 꼽히는 래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훈장인 '필라델피아 최고 훈장' 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헬렌은 자신이 지닌 보물이 무엇인지를 진즉에 깨달은 것입니다. 헬렌이 자신을 부정하고 운명을 탓했다면 이름을 남기기는커녕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을까요?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자아상을 만들 수 있고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가 장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자만심보다 교만심보다 더 나쁜 것이 자신에 대한 비하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못난이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여쁘게 봐줄까요? 자신이 가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보물을 닦아 쓸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의 잣대로 능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결코 자신이 지닌 능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실패 없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앞을 향해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보세요. 남들이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간다면 그만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